WeWe(155)-2017-35(11.15)

김장

유재억

우리 집은 해마다 늦 //월말 서리가 내린 다음에 김장을 하는데, 올해는 뜻하지 않게 평년보다 빨리 김장을 했다. 이유인즉슨 갑자기 토요일에 친구로부터 "배추 갖다 줄까?" 라는 연락을 받아서였다. 평창에 놀러간 친구가 평창에 있는 지인이 팔고 남은 배추를 갖다 주겠다고 하여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누라에게 물어보았다.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 마누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OK였다. 내가 망설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김장을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고 마누라는 일요일에 동창회에 갈 예정이었다. 또한, 우리는 맞벌이 부부이므로 일요일에 배추가 오면 주중에 김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누라가 OK한 이면에는 평창배추의 추억이 있다. 추석이후 친구따라 평창에 여행을 간적이 있는데, 친구의 지인이 평창에서 추석 대목을 고려하여 배추 농사를 지었지만 상품가치가 조금 떨어져 시장에 하나도 팔지 못한 배추를 공짜로 가져와 아주 고소하고 가장 맛있게 먹은 배추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이 고향인 많은 분들 사정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우리 집도 결혼한 이후 줄곧, 부모님이 계셨던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향에서 부모님이 김장해서 가져다주셨고, 그 이후에는 시골에 계신 큰형님이 김장농사를 지어 놓으면 주말을 이용하여 4남매가 함께 모여 김장하는 것이 연례행사였다. 그러다 큰 형님네 조카들이 결혼한 최근에는 처갓집에서 갔다 먹었으나, 금년은 병충해로 우리 집 김장은 어렵다고 처남으로부터 연락이 온 상태라 우리가 별도로 준비할 처지였었다. 그래서 친구의 전화는 우리부부에게 김장재료 걱정을 해결하고 더욱 맛있는 평창의 배추 맛과 더불어 공짜의 행복을 주었다.

월요일 아침부터 마누라는 출근하는 나에게 일찍 귀가하라고 귀가 따갑도록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문자를 지속적으로 날린다. 집에 와보니 대학생인 작은아들 녀석도 엄마한테 붙잡혀 있었다. 퇴근하여 집에 와보니 아침에 배추절인 것 외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나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당연히 김장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2시간 정도만 작은아들과 함께 씻이서 하면 간단히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녁식사를 간단히 해치우고 아들과 함께 무 다듬고 썰고, 절임배추 씻고, 파 다듬고 썰고, 생강 다듬고 갈고, 마늘 다듬고 찌는 등 준비과정이 왜 이리 많던지. 아들 녀석이 갑자기 "김장을 사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직접 만들어!" 하면서 짜증을 부렸다. 짜증내는 아들을 통닭으로 달래주면서 전자제품이 없던 아빠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겨울을 보낸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전기보급도 안 되는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때 까지는 텔레비전도 구경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우리 집은 배추김치, 동치미, 깍두기, 나박김치, 총각김치 등 많은 종류와 많은 양의 김장을 준비하면서 깊은 가을밤에 호롱 불빛을 벗 삼아 어머님을 도와주었던 일과 겨울철 주전부리로 고구마와 감자를 화로 불에 구워먹던 일, 눈 내리면 산토끼 잎 꿩을 잡던 이야기 등을 들려주면서 나도 모르게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아들 녀석과 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김장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 한시가 되었다. 김장이란 입동 전후에 겨울 동안 먹을 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을 담근 후 김칫독을 땅에 묻는 일이 연례행사였으나 최근 김치냉장고의 등장으로 요즘은 거의 1년 동안 먹을 양을 담글 수 있어 많이 편리해졌다. 반면에 신선한 봄과 여름 계절의 맛을 못 보는 게 불행일 수 있다.

아들 녀석이 던진 말이 왠지 모르게 계속 뇌리에 남는다.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성과 가성비 검토를 기본으로 생활해 왔는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가정에서 김장담그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더욱 가속화 되는 핵가족과 식생활의 변화, 식료품의 다양성, 욜로족의 등장으로 몇 년 안에 우리생활에서 김장이란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장담그는 동안의 6시간은 내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이었는데도 어린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어도 아니면서 과거로 돌아가 살고 싶은 이 마음은 대체 무얼까? 가성비, 효율성, 편리성이 중요할지 몰라도 추억할만한 일이 없는 이 피곤한 나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같이 고생하며 생각 없이 지껄이는 말들이 피곤하지만 스트레스를 풀어주었던 것 같다. 특히 소중한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여유를 갖게 한다.

지금의 이 시간이 흐르면 아들에게는 추억으로, 먼 훗날 아빠와의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진다.

< 필 자 소 개 >

▶ 유 재 억

▶ ㈜태영건설 환경사업팀 부장

▶ 회원번호7565/정회원

▶ yj@taeyoung.com